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뜨거웠던 우기 시즌이 지나가고 건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건기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초록 잎의 채소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지내기에 한결 수월해집니다. 물론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요. 하지만 올해는 선선한 날씨가 예년보다 더 일찍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선선한 날씨로 기분은 좋지만, 이상기후 현상은 아닌지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감사한 일은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 비자만 받아왔고 해마다 비자 갱신을 해야 하는 불안함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5년 비자가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년 비자를 받고 선교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라빠 마을'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빠'는 걸어서 7시간이 소요되는 가장 먼 마을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와 학교 건축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건축자재를 사람이 짊어지고 올라가야 했고, 건축에 필요한 나무들은 현지에서 직접 자르고 옮겨야 했는데 정말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건축 과정을 담은 영상과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는 "바누아투 선교" 카카오 채널(http://pf.kakao.com/_erVPG)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위해 올라가는 발걸음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헌당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주변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2시간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바하이'(무슬림의 이단종파)에 속하거나 '토속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헌당 예배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마을 잔치에 스스로 찾아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 전통춤을 시작으로 헌당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의상을 걸친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머뭇거리며 수줍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침 이날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 더욱 힘 있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기가 불편했는지 중간에 조용히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후에는 생명의 길로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의 침묵 이후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하이에 속한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었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 후,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르지날' 마을은 바하이 세력이 굉장히 강한 부시 지역이지만 학교를 열어 달라는 요청에 현지 사역자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분포해 있어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쯤, 그곳의 추장으로부터 반갑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바하이 본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닫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쪽이 닫히면 기대치 못했던 다른 쪽을 여시곤 하십니다. '포르지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분뻏'이라는 마을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포르지날'에 들어갈 수 없다면, 자신들의 마을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라빠' 헌당 예배 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젊은이였습니다. 순간 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기를 힘쓸 때에 꿈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던 장면이었었습니다. 아직 '포르지날' 일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다리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작업을 위해 올라가는 발걸음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헌당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주변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2시간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바하이'(무슬림의 이단종파)에 속하거나 '토속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헌당 예배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마을 잔치에 스스로 찾아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 전통춤을 시작으로 헌당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의상을 걸친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머뭇거리며 수줍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침 이날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 더욱 힘 있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기가 불편했는지 중간에 조용히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후에는 생명의 길로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의 침묵 이후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하이에 속한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었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 후,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르지날' 마을은 바하이 세력이 굉장히 강한 부시 지역이지만 학교를 열어 달라는 요청에 현지 사역자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분포해 있어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쯤, 그곳의 추장으로부터 반갑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바하이 본부에

서 반대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닫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쪽이 닫히면 기대치 못했던 다른 쪽을 여시곤 하십니다. '포르지날' 마을에서 멀지 않은 '분뻏'이라는 마을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포르지날'에 들어갈 수 없다면, 자신들의 마을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라빠' 헌당 예배 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젊은이였습니다. 순간 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기를 힘쓸 때에 꿈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아직 '포르지날' 일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다리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잘 따라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뜨거웠던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한 현지 사역자 부부가 유산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역자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마저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자신의 섬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더욱이 컨퍼런스를 마치고 부시로 돌아간 팀들 중 한 팀이 불협화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중재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한 필드에서는 한 사역자가 일하다 다쳤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정신 없이 운전대를 붙잡고 먼 거리를 내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직후 첫째가 요동치는 마음을 잘 잡지 못해 한 주간 내내 진통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가족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도둑이 창을 칼로 찢고 들어와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때쯤 이번에는 선교센터에서 함께 지내는 현지 사역자 집에 도둑이 들어와 물건들을 훔쳐 갔습니다. 그 사역자는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아이 세 명을 키우는데 마침 밤에 아이들을 집에 두고 병원에 간 사이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되는 청소년들의 가족들은 오히려 모진 말로 공격해 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들려오는 답변은 왜 경비병을 두지 않았느냐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Episode 1.

바누아투는 여전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에서도 그동안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내용물이 다 차면 다른 곳에 땅을 파고 임시적으로 만드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사용하다 보니 늘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산속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를 준비하며 드디어 화장실 대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형태의 화장실을 찾느라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세식으로 하자니 물이 부족 할뿐더러 금새 망가져 버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래식 형태로 하자니 위생상 어려움이 있고 오랫동안 사용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수세식과 재래식의 중간 형태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장실 하나 만드는 일에도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Episode 2.

바누아투에는 유일한 항공사인 “에어 바누아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산토섬에서 국외로 나가는 단 하나뿐인 국제선이며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사업입니다. 하지만 적자 운영으로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200억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것입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편이 한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단기선교를 희망하던 한 교회에서는 비행편을 구할 수가 없어 결국 방문 일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지 학교들은 교사들의 파업이 몇 주간 지속되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경제적 취약성과 정치적 불안정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배회하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범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치안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 기도제목

1. 바누아투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며, 교회들이 방관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2. 현지 사역자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힘 있게 사역하도록. 또한 각 필드마다 한마음 한뜻되어 서로 세워주며 사역하도록.
3.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사역이 더욱 전진해 가도록. 특히 '포르지날' 혹은 '분빳'에 예배의 처소가 세워져 이단 바하이의 활동이 중단되도록.
4. 7월 8일부터 한 주간 부시 어린이들을 위한 첫 캠프를 진행합니다. 산속에 있는 각 사역지마다 모든 아이들이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준비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며 아무 사고 없도록.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 산속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듣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5. 셀레 미션필드 학교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에 교사 한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사를 보내주시도록.
6. 부부가 지치지 않고 균형 있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두 아이들(지명, 명재)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며 즐겁게 홈스쿨링 하도록.

| 소속단체 GMP(한국개척선교회) | 파송교회 부산 호산나교회
| 김희균 선교사 kimhgdavid@gmail.com / 카톡ID kimheegeaun
| 최경인 선교사 worship1225@hanmail.net / 카톡ID worship1225
| 전용계좌 KEB 하나은행 303-04-00004-431 GMP김희균

